

제일제당(주) 디자인팀

소비자와 가장 친숙한 디자인 추구 디자이너가 '생활창조 주체' 라는 자부심



제일제당에서 시판되는 식품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팀

디자인 경쟁시대로 돌입한 현대시대에 포장디자인의 역할은 재삼 강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한 각 기업들의 포장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 또한 바뀌고 있다. 젊은 11명의 디자이너들이 독창적인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무한히 노력하고 있는 제일제당(주) 디자인팀을 방문하는 날은 공교롭게도 신제품을 놓고 열띤 회의를 하는 도중이었다. 멀리서 얼핏 보이는 회의 분위기는 자유로우면서도 진지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위아래를 구별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는 토론의 장이었다.

제일제당주식회사는 유달리 패키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으로 꼽힌다. 제일제당의 제품포장 디자인을 맡고 있는 부서는 둘로 나뉘어 상품기획실의 디자인팀과 생활화학본부 마케팅팀내 디자인과로 되어 있다. 디자인팀은 주로 제일제당에서 생산되는 식품분야의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과는 비누나 세제디자인을 하고 있다. 인원은 패키지디자인팀, 디자인과 각각 11명과 7명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디자인팀은 이문기 과장을 비롯한 11명이 모두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으며 비교적 젊은 디자이너들로 구성되어 패키지만만한 부서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팀 운영을 사업군별 제품담당제로 해오던 것을 인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 와서는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분류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또 많은 국내 대회나 국제대회에 출품해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얼마전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주최로 열렸던 '한국팩스타 94'에서 제일제당의 '즉석국' 제품이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석찬 대리는 "제품의 다양화로 제품군을 세분화하였으며 해물류, 전통식품류, 특별식류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디자인의 특성은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용이하고, 패턴삽입으로 진열의 볼륨감 확대, 천연재료가 풍부하여 건강에 포인트를 맞춘 컬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라고 간단히 제품설명을 했다.

이외에도 이번 대회에서 식품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제일제당 선물세트는 고유 전통명절 시즌용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성·감사·전통의 Visual Image를 표현했고 우리의 전통보자기를 Main Visual 소재로 활용했다. 또한

기타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제로니'는 서구적 스타일의 디자인 패턴을 개발, 차별화된 칼라적용으로 진열임팩트와 제품볼륨감을 강조했으며 종류별 일러스트 대입으로 친근감을 부각시켰다.

“현대사회는 포장디자인 자체가 상품입니다. 상품은 또한 생활 그 자체이므로 저희 패키지디자이너들은 생활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디자인팀 이문기 과장은 디자인을 전공한 것 같지 않은 구수한 외모를 지녀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포장은 기능, 원가, 기계적성, 유통구조 등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포장디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포장과 디자인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포장디자인을 하고 있는 자신들 스스로가 항상 소비자와 고객의 입장이 되어 인간 모두에게 친근감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그들은 요사이 한국적 디자인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짙은데 아직까지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다만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소비자의 생활과 가장 친숙한 포장디자인을 추구해 나가겠다’라고 작은 포부를 밝히는 그들은 아직 젊기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무한한 장점을 갖고 있다.

신제품을 놓고 열띤 회의를 하고있던 모습과,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고자 사무실 구조를 바꾸며 희망에 차 있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일에 대한 의지를 대변하기에 충분했다.

국내 패키지디자인 업계에 쌓여있는 문제점은 우수한 전문 디자이너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학내 포장디자인 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돼 있는 곳이 없고 단지 포장디자인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뿐이다. 앞으로 관련단체들이 좀더 패키지디자인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제대로된 교육이 활성화될 때만이 진정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패키지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일제당 '죽석미역국'은 94한국패스타 패키지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선하기자